

전남 '2년 연속 5000만 관광시대' 여나

상반기 '빅3' 여수·순천·담양 관광객 감소로 '고전'
하반기 지역 다양한 축제 인기에 작년 수준 유지 추정

지난해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연 전남이 올해도 그 명성을 이어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올초 한파와 평창동계올림픽, 지방선거 등으로 상반기 관광객수가 줄어든 전남이 하반기 선전을 통해 2년 연속 5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지 주목된다.

지난해 1508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용인사를 제치고 전국 1위 관광도시로 등극한 여수시는 올해 상반기 관광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여수시가 잠정 집계한 상반기(1

월~6월) 관광객수는 61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만명이나 줄었다.

순천시 역시 올 상반기 379만9817명이 방문, 지난해 같은 기간 410만 4164명보다 30만4847명(7.4%)이 감소했다. 지난해는 9079명이 다녀갔다.

순천시 역시 올해 AI(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여파로 순천만 국가정원이 상당기간 폐쇄되고 동계올림픽 등의 영향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279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담양군도 대표축제인 5월 대나무

축제가 홍사 등 날씨의 영향으로 지

난해에 비해 2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짐짓집계됐다.

상반기 전남 빅3 관광 시·군 관광객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전남 5000만명 관광객 유치에 비상 걸렸다.

설상가상으로 7월말 8월초 여름 휴가 최대 성수기가 전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악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애초 우려에 비해 하반기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서 2년 연속 5000만 관광객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을로 접어들어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함평 국향대전, 명량대첩 축제 등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의 다양한 축제들이 인기를 끌면서 전남은 지난해 수준인 5000만명 가량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상반기 한파와 황사, 동계올림픽, 지방선거 등의 여파로 관광객 유치에 고전했지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굵직한 축제로 인해 관광객이 많이 몰렸다"면서 "정확한 집계는 내년 4~5월에 나오지만, 시군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관광객 5000만명 유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5079만 명의 관광객이 전남 주요 관광지를 다녀가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앞당겨 달성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권익위·혁신위 쌍두마차 소통·혁신 이끈다

첫 공동의제 미세먼지 저감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와 혁신추진위원회가 시정 전반의 소통과 혁신을 이끌기로 한 가운데 첫 공동의제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정했다.

광주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시민권익위원회와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시민권익위원회와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상호 협업을 통해 소통·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의제로 선정하고 광주의 미세먼지 실태와 저감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정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민원, 사업성,



광주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영태)와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네트워크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또 양 위원회가 기능적 협치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분야를 운영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양 위원회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실

현하는 데 양 날개가 되고 양 비퀴의 역할을 할 것이다"며 "각종 정책과 행정이 '혁신, 소통, 청렴'을 바탕으로 펼쳐지도록 쌍두마차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김기태 도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제관공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자

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는 기업 재제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환경개선대표기업에 대한 홍보와 대책이 절실히 할 때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비효율·호화판 논란이 일었던 전남도지사 한옥 공관에 대한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11명 중 7명이 착석한 가운데 도지사 공관을 행정용도로 폐기하고 매각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박병호 전남도행정부지사, 최종선 지자행장국장, 변호사, 김정평가 등 각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다면, 목조 한옥 팔작지붕 구조로 인체·사랑채·문간채 등 지사 한옥 거주공간이 어진누리는 매각 하되, 외부 손님 숙소나 공식 회의장소 등으로 쓰이는 수리채는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사 공간인 어진누리는 건축비 14억원, 현 시세가 17억~1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채는 건축비가 17억원 들어갔다.

전남도는 내년 2월 도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감정평가 후 입찰을 통해 매각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법인은 2018년 12월 6일 개최된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2018년 12월 10일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8. 12. 14

수명양봉영농조합법인
영광군 흥농읍 흥농로 6길 10
청산인 김 수 명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법인 세무회계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 세무회계
■ 대표/공인노무사
■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 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동구, 위생매립장 아이디어 공모 결과 발표

광주 동구가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방안 주민아이디어' 공모작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구 남문로 418-5(소태동) 일원에 위치한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친환경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기획된 이번 공모는 지난달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에서 모두 94개 아이디어가 접수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그 결과 캠퍼스·옹외공연장·산책길·생태연못·짚라인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포함된 복합레저단지를 제안한 정진호(광주 서구) 씨가 대상을, 환경학습공원을 제안한 양성현(광주 동구) 씨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구, 新 목민심서 발간

광주 서구가 공직생활중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인 청렴을 주 내용으로 하는 **新 목민심서**를 발간했다.

신 목민심서는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 선생의 '목민심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에 맞는 실천 사례를 접목해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발간했다.

이번, 위민·정렴·공정·겸약·절제·퇴직까지 총 7장으로 구성된 책자는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윤리관과 마음가짐과 공직자 행동강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일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남구, 정부 특별교부세 65억원 성과

광주 남구가 올 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구에서 견의한 노후 육교 보수와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비는 배운동과 효천지구, 효덕동 육교 보수와 백운2동 1구역 안전한 골목 만들기, 월산동 및 병법2동, 송암동 주민센터 내진 성능 보강 공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남구청이 올 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65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 53억7,300만원에 비해 12억원 가량이 증가한 셈이다.

북구, 주민밀착형 독서공간 조성나서

문인 북구청장이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문화생활 정착 및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광주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13일 일목도서관을 찾아 프로그램 및 동아리 참여자, 인근 주민들을 만나 지역민들의 독서문화 즐진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도서관 시설 확충,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중심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광산구, 오늘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광주 광산구가 14일 수완동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18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한다.

광산구 곳곳에서 매력·활력·품격 넘치는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온 150여명의 마을활동가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추진된 마을활동을 평가·결산하는 자리.

광산구는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에 대한 관심과 주민 지자력 향상, 공동체로 삶의 문제 해결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마을활동가들이 함께 그간 활동의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은 극복하며 '내 삶이 행복한 마을공동체'에 더 다가가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임형택 기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